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7 주차 (9:1~9:17)

(2015년 5월 24일 - 2015년 5월 30일)

(제3권 18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5 월 24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9:1~7)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Καὶ παρόγων εἶδεν ἄνθρωπον τυφλὸν ἐκ γενετῆς.)
- (2절) 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έγοντες)
랍비여! 누구 죄입니까? (ῥαββί, τίς ἥμαρτεν.)
그 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 입니까? (οὗτος ἢ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 결과 장님이 되었습니까?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ῆι.)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οὔτε οὗτος ἥμαρτεν οὔτε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오히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ῆι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ἐν αὐτῷ.)
-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낮 동안에는 (ἕως ἡμέρας ἐστίν·)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ἔρχεται νύξ ὅτε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ργάζεσθαι.)
-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ὅταν ἐν τῷ κόσμῳ ᾶ.)
나는 세상의 빛이다 (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 (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ταῦτα εἰπὼν ἔπτυσεν χαμαὶ)
그리고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εν πηλὸν ἐκ τοῦ πτύσματος)
그리고 그의 눈위에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καὶ ἐπέχρισεν αὐτοῦ τὸν πηλὸν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7절)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떠나라 실로암의 연못으로 [그리고] 씻으라 (ὑπάγε νύμφα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τοῦ Σιλωάμ)
(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됩니다) (ὁ ἐρμηνεύεται ἀπεσταλμένος.)
그래서 그가 떠났고,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ἀπῆλθεν οὖν καὶ ἐνίψατο καὶ ἦλθεν βλέπω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주체를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뿐 아니라 사도들과 이후에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질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을 읽으십시오.

“¹⁸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지상 명령은 “모든 이방을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수행 주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나의 사역팀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낮’과 ‘밤’을 언급하셨는데 그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 나아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로 이해한다면 ‘밤’은 ‘세상 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역의 범위를 제자들에게까지 확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는 두 번째 견해를 택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둘 중 어떤 견해를 택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느냐? 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빛의 자녀들’(반대로 ‘밤에 속한자들’)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고 특히 유대종파 중 에센파들은 공공연히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제자들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곧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평생을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드디어 그에게 ‘참빛’을 보여주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공생애 기간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의 빛이 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한 빛이고 낮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들추어 내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구별되지 않았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빛이 오자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로 극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빛이 없으면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씀의 의미로 돌아가 보지요. 빛이 이 세상에 오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빛과 어둠으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살전 5:4-9).

빛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속한 자들은 종말론적으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적 의미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빛과 어둠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보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5 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포스 에이미 투우 코스모우)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화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에 늘 사용하신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 점입니다. 우리는 8 장 12 절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ἐγώ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라고 선언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 말씀도 비록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셨더라도 8 장 12 절의 선언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낮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빛에 속하였고 낮에 속한 자입니까? 혹시라도 가끔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언제 스스로를 낮에 속하였다고 확신하고 언제 밤에 속한 자가 아닌지 의심을 하시나요? 이 두 그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자신이 이 둘 중 어디에 속한 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장님이 빛을 찾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9:1~7)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Καὶ παρόγων εἶδεν ἄνθρωπον τυφλὸν ἐκ γενετῆς.)
- (2절) 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έγοντες)
랍비여! 누구 죄입니까? (ῥαββί, τίς ἥμαρτεν,
그 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 입니까? (οὗτος ἢ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 결과 장님이 되었습니까?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ῆι;)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οὔτε οὗτος ἥμαρτεν οὔτε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오히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ῆι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ἐν αὐτῷ.)
-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낮 동안에는 (ἕως ἡμέρας ἐστίν·)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ἔρχεται νύξ ὅτε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ργάζεσθαι.)
-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ὅταν ἐν τῷ κόσμῳ ᾶ,
나는 세상의 빛이다 (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 (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ταῦτα εἰπὼν ἔπτυσεν χαμαὶ)
그리고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εν πηλὸν ἐκ τοῦ πτύσματος)
그리고 그의 눈위에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καὶ ἐπέχρισεν αὐτοῦ τὸν πηλὸν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7절)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떠나라 실로암의 연못으로 [그리고] 씻으라 (ὑπάγε νύμφα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τοῦ Σιλωάμ)
(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됩니다) (ὁ ἐρμηνεύεται ἀπεσταλμένος).
그래서 그가 떠났고,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ἀπῆλθεν οὖν καὶ ἐνίψατο καὶ ἦλθεν βλέπω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5 절)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6 절의 이적을 예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3 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몸소 보여 주려 하십니다.

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고는 침을 땅에 뺨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 위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하신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침’을 뺨은 경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였고(막 7:33) 다른 한번은 벳세다에서 장님을 고치실 때였습니다.(막 8:23) 하지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 부위에 바른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여기서처럼 특별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명령만 하셨다는 점에서 이번 행동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정설로 인정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빛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7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뺨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신 후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실로암 연못으로 [그리고] 씻으라.” 아마도 예수님 일행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 연못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BC 700 년경 남유다 히스기야왕이 앗수르 산헤립의 침입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연못으로 예루살렘 성 밖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있는 기혼샘(윗못)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하여 성 안에 물을 저장했던 두 개의 연못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연못은 기혼샘에서 약 533m 정도의 긴 수로를 거쳐 실로암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이 수로를 만든 일은 열왕기하 20 장 20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왕하 20:20).

여기서 못은 실로암 못을, 수도는 기혼샘에서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수로를 말합니다.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 수도와 못을 만든 일을 히스기야왕의 매우 중요한 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히브리어 ‘사라’(רַחֵץ)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내다’라는 의미의 수동형으로 ‘보내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실로암에 대해 이사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각각 ‘실로아’와 ‘셀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니”(사 8:6)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느 3:15).

한편 실로암의 물은 아주 정결한 것으로 여겨져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사용되는 물을 실로암에서 금주전자로 담아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한이 굳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의 미를 밝혀 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실제로 실로암에 이르러 그물로 눈을 씻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그리고]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실로암으로 보냈고 그 청년은 이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고 마침내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로암의 뜻인 ‘보내심’에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7절 후반절에서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났고, 씻었으며, 보게되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 청년이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논쟁의 내용도 정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데 ‘실로암’의 의미는 빛을 찾은 이 청년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로 ‘보내졌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 즉 그가 어떻게 빛을 찾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고 진리에 눈뜨게 하시면 이어서 곧바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어느 순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져 내가 어떻게 빛을 찾고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깨달은 후 당신은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를 알게 된 경위를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각자의 체험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그 사람입니다! (확요일)

오늘의 본문 (요 9:8~12)

8. 이웃 사람들과 밧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 니냐
9.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10.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 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8절) 그런데 이웃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을 때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Οἱ οὖν γείτονες καὶ οἱ θεωροῦντες αὐτὸν τὸ πρότερον ὅτι προσαίτης ἦν ἔλεγον·)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καθηήμενος καὶ προσαιτῶν·)
- (9절)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입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ὐχί, ἀλλὰ ὁμοιος αὐτῷ ἐστιν·) 그가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ος ἔλεγεν ὅτι ἐγώ εἰμι·)
- (1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그런데 당신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πῶς [οὖν] ἠνεόχθησαν σου οἱ ὀφθαλμοί·)
- (11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나의 눈들에 발랐습니다 (ὁ ἄνθρωπος ὁ λεγόμενος Ἰησοῦς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καὶ ἐπέχρισέν μ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έν μοι) 실로암으로 떠나라 그리고 씻어라 (ὅτι ὑπάγε εἰς τὸν Σιλωὰμ καὶ νίψαι·) 그래서 내가 가서 씻은 후 보게 되었습니다 (ἀπελθὼν οὖν καὶ νιψάμενος ἀνέβλεψα·)
- (12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그가 어디에 있느냐? (ποῦ ἐστιν ἐκεῖνος·)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λέγει· οὐκ οἶδ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9 절을 읽으십시오.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청년이 실로암에서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 음은 그가 나온 후 예수님께 따로 감사를 드렸다거나 그분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독자들로서

는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무대 전면에서 사라지고 빛을 찾은 그 청년은 어느새 이웃들과 그가 구걸하던 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상황이 전개되니까요.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 청년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떠나고 안계셔서 다른 이웃들에게 간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이웃들에게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청년의 처지였다면 모든 것이 처음 보는 생소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그를 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이지요.

저자인 요한은 그가 '구걸하던 거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아마도 예수님께 구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면 기왕이면 학식도 많고 부자에다가 잘 생긴 사람, 요즈음 말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면서부터 장님에다가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은 극단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태도이고 다른 한편은 세상과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천국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등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상적'이라는 말은 더러운 것, 버려야 할 것,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세상의 것에 매우 배타적이고 때로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양극단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싫든 좋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들만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세상의 힘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도 금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비성경적인 생각이며 올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맹신에 불과하며 인격이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배척해야 할 것도 아니고 집착하여 얻어내야 할 것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에 기반한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나면서부터 장님이었고 너무 가난해 구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아주 기구하며 비참하다고 묘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중립적 시각이 아닌 선악의 시각, 이중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청년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는 눈이 멀고 구걸하던 그 삶이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으니까요.

8-9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의 이전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멀쩡해진 상태로 실로암에 서 돌아온 그를 보고는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라며 의아해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사람이 그입니다”라며 단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라며 장님이 눈을 뜬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왜 그를 알았던 사람들조차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의심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변화란 도덕적으로 그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진정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에 아등바등대지 않고 여유가 생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아등바등대지 않고 의연히 인내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변화’의 의미를 주로 도덕적, 율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바람에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세계관은 진정으로 변화되었나요?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나요?

9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자 이 청년은 자신이 바로 나면서부터 장님이었고 구걸을 하던 그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증’인 셈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두 번째 비결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남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평평거리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의미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악임을 깨닫게 돼 버렸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했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심정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9:8~12)

8. 이웃 사람들과 밧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 니냐
9.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10.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 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8절) 그런데 이웃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을 때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Οἱ οὖν γείτονες καὶ οἱ θεωροῦντες αὐτὸν τὸ πρότερον ὅτι προσαίτης ἦν ἔλεγον·)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καθημένος καὶ προσαιτῶν·)
- (9절)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입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ὐχί, ἀλλὰ ὁμοιος αὐτῷ ἐστιν·) 그가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ος ἔλεγεν ὅτι ἐγώ εἰμι·)
- (1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그런데 당신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πῶς [οὖν] ἠνεόχθησάν σου οἱ ὀφθαλμοί·)
- (11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나의 눈들에 발랐습니다 (ὁ ἄνθρωπος ὁ λεγόμενος Ἰησοῦς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καὶ ἐπέχρισέν μ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έν μοι) 실로암으로 떠나라 그리고 씻어라 (ὅτι ὑπάγε εἰς τὸν Σιλωὰμ καὶ νίψαι·) 그래서 내가 가서 씻은 후 보게 되었습니다 (ἀπελθὼν οὖν καὶ νιψάμενος ἀνέβλεψα·)
- (12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그가 어디에 있느냐? (ποῦ ἐστιν ἐκεῖνος·)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λέγει· οὐκ οἶδ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0 절을 읽으십시오. 눈을 뜬 거지 청년이 자신이 원래 눈먼 사람으로 구걸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 질문은 눈을 뜨게

된 방법(how)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 (how is it possible that?)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의문부사 포스(πως)는 위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면 서부터 눈이 멀어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되어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멀쩡해져서 그들 앞에서 있으니 그사실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지금 청년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청년은 그 일을 보지 못한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이 눈을 뜬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이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나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실로암으로 떠나라 그리고 씻어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은 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서 전도의 세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두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것에 어떻게 따랐는지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과정도 아주 간략하지만 임팩트 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첫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당시의 체험을 남들에게 설명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존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삼위일체 하나님 중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 오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삼위 중 또 다른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삼일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진리로 알려주신 사건 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 장 4 절~10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⁵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 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⁶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⁷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는지라 ⁸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⁹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

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¹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1:4-10).

이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을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벧전 3:15 참조).

11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을 뜨게 한 그 장본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한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청년의 태도와 말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남들에게 알리는 전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믿지 않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에게 있는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연락을 취해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짜로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¹⁷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¹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¹⁹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²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²¹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17-21).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필이면 안식일이--(목요일)

오늘의 본문 (9:13~17)

13. 저희가 전에 소경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17. 이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한대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Ἔγουνσιν αὐτὸ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τὸν ποτε τυφλόν.)
-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ἧ ἡμέρᾳ τὸν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ἀνέω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15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πάλιν οὖν ἠρώτων αὐτὸν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πῶς ἀνέβλεψεν.)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그가 진흙을 나의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그리고 봅니다 (πηλὸν ἐπέθηκεν μοι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καὶ ἐνιψάμην καὶ βλέπω.)
- (1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말하였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ινές·)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οὐκ ἔστι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ὁ ἄνθρωπος.)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σάββατον οὐ τηρεῖ.)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어떻게 죄인이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τοιαῦτα σημεῖα ποιεῖν.) 그리고 그들 사이가 나뉘어졌습니다 (καὶ σχίσμα ἦν ἐν αὐτοῖς.)
- (17절) 그래서 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ὖν τῷ τυφλῷ πάλιν·)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하여 누구라 말합니까? (τί σὺ λέγεις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ἠνέω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στί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3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왔습니다.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청년을 “전에 장님이었던 그”(αὐτὸν... τὸν ποτε τυφλόν)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에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온전해져서 빛을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왜 이 청년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 다시피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는 초막절 축제 기간 중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 종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유독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이를 기록한 시점에 주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타이투스)장군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졌고(A.D. 70년) 성전을 기반으로 호위호식하던 사두개인들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태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독자들에게 이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없는 일이었기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건재했던 바리새인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을 찾아감으로써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눈을 씻도록 한 그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14 절은 이후에 전개될 복잡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날짜, 절기 등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일 준수를 비롯하여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활은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할 것과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회(A.D. 49 or 50)를 거치면서 교회내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정리되었지만 교회 밖의 유대인들은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유대주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어느 교회든지 이 문제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맞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²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³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셨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⁵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롬 14:1-5).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⁵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갈 2:3-5)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⁹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¹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¹¹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¹²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¹³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¹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¹⁵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¹⁶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8-16).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서 유대주의는 여전히 그 세력을 잃지 않고 교회 깊숙이 들어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을 은혜의 신앙에서 종교적 행위로 변질시키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란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을 아무런 질책이나 비난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받은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남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지요(롬 13:10 참조).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무엇으로 갈등을 겪고 있나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회 지체들에게서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것으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왜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금요일)

오늘의 본문 (9:13~17)

13. 저희가 전에 소경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17. 이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한대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Ἔγουντι αὐτὸ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τὸν ποτε τυφλόν.)
-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ἡμέρᾳ τὸν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ἀνέω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15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πάλιν οὖν ἠρώτων αὐτὸν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πῶς ἀνέβλεψεν.)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그가 진흙을 나의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그리고 봅니다 (πηλὸν ἐπέθηκεν μοι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καὶ ἐνιψάμην καὶ βλέπω.)
- (1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말하였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ινές·)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οὐκ ἔστι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ὁ ἄνθρωπος.)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σάββατον οὐ τηρεῖ.)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어떻게 죄인이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τοιαῦτα σημεῖα ποιεῖν.)
 그리고 그들 사이가 나뉘어졌습니다 (καὶ σχίσμα ἦν ἐν αὐτοῖς.)
- (17절) 그래서 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ὖν τῷ τυφλῷ πάλιν·)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하여 누구라 말합니까? (τί σὺ λέγεις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ἠνέω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στί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재차 물어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οὖν), ‘다시’(πάλιν), 질문했다고 말하면서 질문한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하였다는 것은 이 청년

을 데리고 온 누군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기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래서’라는 말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청년이 눈을 뜬 사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은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한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독자인 우리들 눈에도 예수님이 고의로 안식일을 택하여 바리새인들이 금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미 5 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질문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였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장님인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얻기 위해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보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가 낮게 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대로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무언가 율법을 범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 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추정은 계속되는 논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나 성취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목소리를 높이고 단어도 자극적인 단어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에 포함된 진리나 생명이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열을 내느냐? 왜 저런 저속하고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태도를 나무라는데 급급해서 그가 전하는 진리나 생명의 메세지 자체를 목살해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마태복음 12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¹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¹¹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¹²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¹³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¹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마12:9-14).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보지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길가던 어떤 청년이 죽어가는 그녀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다행히 그 여자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마침 딸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 온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다짜고짜 그 청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 아이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당신은 무어라 말할 건가요? 사실 과장된 면이 없지 않는 예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말씀을 전하면 이왕이면 양복을 입어야지라며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자

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인 셈이지요. 당신은 어떤가요? 만약 당신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치우쳐서 그걸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당신도 율법주의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요.

15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 청년은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진흙을 나의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그리고 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 진술이 됩니다.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는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역시나 실로암까지 가서 그 진흙을 씻는 일을 했기에 그도 역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악기가 어떻고 등등 형식에 관해 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는지요? 혹시 형식적인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들을 비판한 적은 없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나누어보세요.

아주 오래 전에 한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미쉬 공동체를 다녀와서 쓴 칼럼이 생각납니다. 아미쉬 공동체는 17세기말 스위스에서 생긴 기독교 종파 중의 하나로 철저하게 17세기 스위스의 전통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칼럼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7세기의 전통만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 지키려고 하는 전통들도 아마도 그것이 처음 생겨난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피아노가 교회에서 반주악기로 쓰였을 때 사악하고 파격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오롯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는 선지자입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9:13~17)

13. 저희가 전에 소경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17. 이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Ἔγουςιν αὐτὸ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τὸν ποτε τυφλόν.)
-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ἧ ἡμέρᾳ τὸν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ἀνέω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15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πάλιν οὖν ἠρώτων αὐτὸν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πῶς ἀνέβλεψεν.)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그가 진흙을 나의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그리고 봅니다 (πηλὸν ἐπέθηκεν μοι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καὶ ἐνιψάμην καὶ βλέπω.)
- (1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말하였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ινές.)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다 (οὐκ ἔστι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ὁ ἄνθρωπος.)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σάββατον οὐ τηρεῖ.)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어떻게 죄인이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τοιαῦτα σημεῖα ποιεῖν.) 그리고 그들 사이가 나뉘어졌습니다 (καὶ σχίσμα ἦν ἐν αὐτοῖς.)
- (17절) 그래서 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λέγουσιν οὖν τῷ τυφλῷ πάλιν.)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 대하여 누구라 말합니까? (τί σὺ λέγεις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ἠνέω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στί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6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 중 몇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이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이 짧은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 그룹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중대 범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것을 보니 절대로 하늘로부터 왔을리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자 이내 반론이 제기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을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장애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증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시력을 갖게 해 준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2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²²그 때에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²³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²⁴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²⁵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²⁶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²⁷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 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²⁸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2-28).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와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는 율법적 기준 사이에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도 비슷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자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⁷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⁸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롬 3:7-8).

사도 바울의 말을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을 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마땅한 거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바울을 곤혹스럽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위해 죄를 지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도덕 폐기론자로 몰아간 것이지요. 이런 일은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나요?”라는 조롱섞인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들보다는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개혁주의 설교가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한 복음이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이라는 비난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지요. 당신이 ‘무엇을 하였느냐’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온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 복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러한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불러 오게 [듣게] 되기 쉽습니다. “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괜찮겠군?”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서[로마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롬 6:1참조)... “매우 좋은 소리아!” 누군가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단한 절! 야, 우리 이제 가서 술이나 먹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올바르게 할거야”

“도덕 폐기론! 성경의 교리—이신칭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짜 은혜—는 늘 도덕 폐기론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무법을 권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 더 죄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것이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부터 당신이 선한 삶을 산다면, 당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면, 당신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그리고 교회 일로 바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매우 좋은 크리스찬이고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복음과 정반대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는 좋은 일을 권하는 것이므로 도덕폐기론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 [하지만] 만일 당신이 도덕 폐기론자로 오해받지 않거나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진정으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Martin Lloyd-Jones, *Romans: Exposition of Chapters 2:1-3-20; The Righteous Judgement of God* (Carlisle, PA: The Banker of Truth Trust, 1989), 186-187.)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장님인 한 청년을 안식일에 고친 죄로 그들의 허울뿐인 율법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를 고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막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안 먹던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안 하던 거짓말을 하고, 마약중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어떻게 이 세상의 법을 함부로 어기면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예기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여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에도 아무런 조건없이 그런 나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교를 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이지요(요 9:22 참조). 그는 자신에게 빛을 준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